

## 쓰레기 침출수로 피해 호소하며 자해한 억울한 사연

◇ 정리 / 김동진 기자

지난달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주에서 육계업을 하는 김봉득 사장(본회 경북지부 회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원인은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봉득 사장은 자해를 하는 즉시 인근 카톨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집 근처 상주시 성모병원으로 이동, 지난 17일 퇴원을 하였으며, 현재는 농장에서 요양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김봉득 사장은 보상을 떠나서 정신적인 고통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느냐며, 행정편의주의적인 공무원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해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행동인지는 잘 알고 있으나 삶의 의지까지 상실한 상황에서 힘없는 양계인으로서 당해야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다른 양계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자해를 하게 되었다고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 문제는 이미 본지(2001년 2월호)에서 취재를 통해 게재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서 7만수



△상주성모병원에 입원중인 김봉득 사장

규모로 10여년간 육계업을 경영해온 김봉득 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경부터 일주일만에 걸쳐 25,000수에 달하는 닭들이 집단폐사하는 등 갈수록 피해가 늘어났고, 정원 연못에서 닭수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원인은 상주시에서 인근에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로 밝혀짐에 따라 상주시청을 상대로 4개월간 배상문제를 놓고 끈질긴 투쟁을 해왔으며, 지난 12월 22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 상주시청 현관에서 삭발 단식투쟁을 펼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상주시청은 지하수를 우선 조치해 주고 육계폐사 및 사업손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준하여 배상하겠다는 합의문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으며, 결국 지난 1월 10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를 상대로 피해 배상액 39,700만원(수질오염에 따른 식수 및 축수 이전금액, 수질오

염에 따른 육계피해액, 수질오염에 따른 연못 복구작업비, 토양오염에 따른 지가 하락)에 대해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6월 8일 침출수로 인한 오염피해를 인정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주시청에 9,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피해 배상액 39,700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다.

김봉득 사장은 억울함을 안고 지난 6월 말부터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불가라는 판결을 접하면서 결국 지난 7월 27일 자해를 하게 된 것이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과거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최종 판결을 내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나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투쟁해온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

에 앞이 캄캄한 상태이다. 김봉득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주시청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상주시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책임회피보다는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어렵게 업을 영위해가는 양계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연락처 : 017-422-8818) 양계



△사해 1주일 전 분회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김봉득 사장